



4면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 마무리

# 전주매일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음 1월 15일) 제272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약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북 군산형 일자리,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최종 선정 전기차 산업 새로운 미래 개막

문 대통령이 참석한 협약식  
이후 1년 4개월여 만 성과  
송 지사 “지역 산업 체질 개선  
전국적 성공모델 안착 지원”



송하진 전북도지사(왼쪽)와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기업 대표들이 25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전북 군산형 일자리 모델 정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25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했다. <관련기사 3면·16면>

지난해 6월 광주, 10월 경남 밀양·강원 횡성에 이은 네번째 지정이다. 2019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던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의 성과다.

영상회의로 진행된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민관합동지원단의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 안건 논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관합동지원단의 타당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상생요소, 사업의 지속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직접 발표한 송하진 지사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대기업이 빠져나간 위기를 닫고, 중견·벤처기업들이 힘을 모

아 대기업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기차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주)명신 등 4개 완성차 업체와 1개 부품업체가 2024년까지 총 5,171억원을 투자해 전기 SUV, 전기 트럭, 전기버스 등 24만대를 생산하고, 1,7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참여기업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4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으로 한국 GM군산공장 폐쇄로 잃어버린 일자리를 회복 체질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생산과 고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부터 참여기업이 지역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특화 컨설팅을 통해 밸류체인(Value Chain) 연계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자 이사회 참관제, 공동근로복지기금, 선진형 임금체계 도입 등 협약 이행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선정은 계기로 미래 신산업으로 전북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전국 최대의 전기차 생산기지로 성장시켜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함께 한 강임준 시장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에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올해부터 실행단계에 들어선 만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성 기자

## “안심하고 백신 맞으세요”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는 최선의 방안”

김승수 전주시장, 시민들에 협조 당부



김승수 전주시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두고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며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백신을 맞아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4면>

김승수 시장은 25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26일 오전 10시부터 전주시 보건소 의사와 간호사, 직원들로 꾸려진 방문접종팀이 고위험 시설인 요양시설과 정신요양·재활시설에 있는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숙련된 의료진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백신 접종을 진행할 것"이라며 "예방접종 후에는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소방서 및 의료기관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 접종은 올 11월까지 18세 이상 전 시민 접종 완료율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접종 시기가 되면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전주시 백신 접종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우선 26일부터 다음달까지 총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1

차 접종이 진행된다. 접종 대상은 집단감염에 취약하고 감염 시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의 65세 미만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이다.

1차 접종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화이자 백신)를 제외하고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된다. 1차 접종이 끝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에 따라 8주 뒤인 5월경에 2차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날 전주시보건소와 요양병원 등에 차례로 공급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역사회협약체 기 관장 회의를 개최해 차질 없는 사전 준비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23일에는 평화보건지소에서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한 사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김 시장의 비대면 브리핑은 '전주시 LIVE'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김 시장은 "접종대상자 및 백신 수급 관리, 시설 점검, 예방접종 홍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모의훈련과 반복점검을 통해 민간의 준비를 해왔다"면서 "백신 접종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자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26일부터 접종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이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가 철저히 유지되고, 빈틈없이 접종대상자를 관리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마쳤다.

전북도는 26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도내 18세 이상 154만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 오늘부터 도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 시설 대상 접종 시작으로 11월까지 도내 18세 이상 154만명

1분기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1만 4,219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첫 접종이 시작된다. 이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119 구급대, 역학조사관 등)을 3만여명을 접종한다.

접종 방법으로는 ▲요양병원은 병원 내 자체접종, ▲노인요양시설, 정신요

양·정신재활시설은 보건소 또는, 시설별 협약 의료기관 방문접종,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는 접종센터 또는, 병원 자체 접종, ▲고위험 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은 병원 자체접종, ▲코로나19 대응요원은 보건소 내소접종 등으로 시행된다.

더불어, 화이자 백신은 감염병전담병원(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순창요양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운영병원(전

북대병원, 임광대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1,089명을 대상으로 3월중 접종한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도민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 및 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등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하반기부터는 백신 도입 일정 조정과 상반기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가운데)가 25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으로 고려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확대한다.

최훈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장은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도민 모두가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현재 도내 예방접종센터 후보지는 15개소로, 3월에 전주 화산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하고, 7월까지 14개 예방접종센터를 순차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유호성 기자

3·1절 관계로  
3월 1일까지 신문 쉽니다.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때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